

신해양시대 충남 해양수산 발전전략

CHUNGNAM FORUM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충남발전협의회(회장 한만우)와 공동으로 5월 31일 제10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충남임해수련원(대전해수욕장 소재)에서 해양수산 전문가, 관계 공무원, 수협 임직원, 어촌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해양시대 충남 해양수산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움은 최근 바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공주, 연기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충청남도가 환 황해권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잠재력 넘치는 바다를 기반으로 한 항만물류, 수산경제, 어촌·수산업 활성화, 해양자원의 관광자원화 등 새로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개최됐다.

이희경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장은 이날 심포지움에서 "충남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방향" 기초발표를 한데 이어 박성래 부경대학교(전 부산수산대학교)해양산업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충청권 발전과 충남의 항만·물류체계(길광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물류전략팀장) ▲"바다목장 사업과 충남수산의 미래(명정구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주 5일 근무와 웰빙시대의 어촌관광 진흥전략"(정 준 농촌체험휴양협회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토론자로 나선 김용환 호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김준석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장, 김정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 이태원 충남대 해양환경과 교수,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경제·관광연구부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유덕준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하여 "바다를 장악하고 개발하는 것이 국력 이라며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토론을 통하여 집약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충남해양수산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원장은 "오늘 토론에서 제시된 서해 중부권 물류중심 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방안, 서해 갯벌 바다목장사업 등 수산업 활성화 방안 주 5일제 확산에 따른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자원화 방안 등을 도정에 반영 충남도가 신 해양시대를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며, "충남 해양수산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되었다고 심포지움을 평가하였다.

충남도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방향

이희경 |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장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충청남도는 총 면적 8,598 km²로 전 국토 면적 99,601km²의 8.6%를 점유하고, 인구 197만명중 어업 인구는 26,267명(9,322가구)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953km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선과 304km²의 광활한 갯벌을 보유하고, 특히 만(灣)과 도서(島嶼)가 발달한 청정해역으로 수산과 해양관광지로서 풍부한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다.

특히 수산동식물의 보고(寶庫)이자 천혜의 산란장인 천수만과 가로림 만을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이 전국 각지를 연결하고 있어 해상 물류기지 와 수산업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어촌은 유엔해양법 발효, WTO 출범 이후의 수입 수산물 증가와 어장축소, 바다 오염 등으로 인한 어획부진으로 이어져 어업경영이 악화되었는가 하면 어촌인력의 노령화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해양수산 비전을 「**풍요로운 바다, 살기좋은 어촌건설**」에 두고 바다는 깨끗하고 자원이 풍부한 바다로, **어업인**은 자립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 전문인으로, **어촌**은 수산업과 다양한 생활이 어우러진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어업 및 유통구조 개선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활력있는 어촌 조성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미래 어촌지도자 육성 ▲항만개발·육성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이에 충남도는 수산업·어촌종합대책에 따라 2013년까지 약 2조 1,345억원을 투자(2005년 52개사업 357억원)하여 지속 생산이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깨끗하고 풍성한 바다환경 조성 과 어촌을 생산·주거·관광 레저시설을 갖춘 다기능·복합공간으로 개발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책으로 첫째, 우리 어업인들의 생활 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2004년 「바다청결 원년의 해」에 이어 2005년을 「바다청결 2차년의 해」로 정하고, 어장 생태계 변화 및 어장형성에 장애가 되는 바닷속 침체어망 수거(375톤 1,125백만원), 해양 쓰레기수매(2,000톤 500백만원), 어장정화사업(914ha 738백만원), 해양쓰레기수거장비구입(3대 700백만원), 연안 환경을 개선·복원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8개소 2,600백만원), 관광낚시객에 대한 무공해 환경 후보급, 자율을 통한 바다 청소의 날 운영(월 2회), 1社 1沿岸 가꾸기 운동 등 다양한 해양 정화·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둘째, 최근 주 5일근무제 실시로 어촌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어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 어촌관광을 통한 어업 외 소득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1권역 1,750백만원) 어촌체험마을조성(3마을 1,500백만원)과 어촌관광종합계획에 따라 관광기능을 더한 다기능어항 3개소(500억원), 어촌관광단지 1개소(60억원)를 2009년까지 조성하여 지역 수산물 축제, 어촌문화·민속, 유적지 등과 연계한 어촌체험·관광벨리(Valley)를 조성하여 생산·주거·관

광이 어우러진 풍요롭고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 생산이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어초시설(700ha 4,500백만원), 수산종묘방류사업(54백만미 734백만원)으로 자원을 증강시켜 나가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40척 4,400백만원), 내수면인공산란장 조성 등 내수면어업개발에 590백만원, 김유기산공급 등 수산증양식사업에 1,529백만원, 어촌지도자 육성에 1,467백만원, 친환경어선대체 등 어로시설현대화에 3,461백만원을 투자하고,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를 지속 확대하여 2005년까지 25개 공동체, 2010년까지 100개 공동체를 육성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어업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한편, 특히「서해 갯벌형 바다목장」사업(8,500ha)에 2010까지 388억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소비자들의 기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비자 지향형 수산물 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에 수산물산지공시시설 1개소에 667백만원, 수산물직매장 2개

소, 800백만원을 투자하고, 2013년까지 수산물유통시설의 콜드체인시스템화(6개소), 위판 및 직매장시설 확대(16개소), 수산물유통센타건립(4개소), HACCP시설을 갖춘 선어회가공공장(3개소)등을 시설하여 소비자 입맛에 맞는 수산물을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증가하는 어항수요에 대처하고 대 중국 교역의 거점 항만개발을 위하여 어항·항만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생산시설 위주의 어항개발에서 해양관광·레포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시기를 앞 당겨 금년에 15개 지방어항에 211억원을 투자하여 집중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항만에 대하여는 지역 특성과 수요 중심으로 개발,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보령신항(11선석)을 대 중국 교역대비 동북아 경제거점 항만으로 개발하고, 대산항(24선석)은 서해안 중부권 거점 종합항만으로, 장항항(2선석)은 배후산업단지 화물운송 거점항만으로, 태안항(2선석)은 태안화력발전소 연료수송 지원항만으로, 평택·당진항(41선석)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을 분담하는 중부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충남도는 긴 리아스식 해안과 완만하고 너른 갯벌, 수산물의 보고(寶庫)이자 산란장인 만(灣), 크고 작은 아름다운 섬, 국립해안공원의 청정해역, 어촌민속·문화 등 수산·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개발 잠재력이 많은 뿐만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Heart of Korea)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만6천여 어업인과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계획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면 10년후 어업인소득 3천4백만원 수산물 생산 12만 2천톤, 항만물동량 10만 3천톤 육박 등 살기좋은 어촌, 깨끗하고 풍성한 바다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충청권 경제발전과 충남의 항만·물류체계

길광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전략팀장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 혁신 산업 클러스터 형
성으로 충남권의 항만 물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남지역은 신행정수도 건설 및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행정·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연
기·공주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이 제정되고, 5월에 시행령이 발효되어,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 및 연계 교통망 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행정중
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연고산업을 고려한 산
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충청남도의 낙후된 산악내
륙지역의 경제 발전 및 인구유입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충남권 환경변화와 산업구조에 적합한 항만
물류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충남권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물류 인프라 확
충(서해안고속도로,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수도권

의 산업기능이 충남의 북부지역인 아산시, 천안시,
서산시 등으로 흡수되고 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입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원유, 석유제품 등의 생산지이며
수요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충남의 반도체 수
출규모는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산 탕정지역이 제2일반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되면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충청남도의 수출입 물류의 특징을 살펴보
면, 수출은 항공수송이 필요한 화물과 전용부두가
필요한 화물이, 수입은 대량벌크화물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임해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출입 물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내륙물류 체계의 변화는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충청권 수
출입 화물의 물류 특성에 맞게 항만과 생산지간의
물류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

되었다.

일본의 지자체별 항만 개발 사례에서도 알 수 있
듯이 다수의 지역거점항만 개발이 화물 물동량을
창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물을 유
치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동북아 물류체계에
편승할 수 있는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항만이 필요
하며, 대내적으로는 지역 전략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지역 항만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내 환황해권 중심의 지역
거점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청권 주변
지역 화물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교통물류 인프라(타
권역과 항만과의 연계 도로 등)가 개선되어야 한
다. 또한 석문·고대 등의 산업단지에 컨테이너화
물 창출이 가능한 가공 조립 및 소비재 관련 기업
이 입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산업구조가 현재 수
도권과 같은 3차산업 중심체제로 변경되어야 하는
데, 이것은 단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러므로 충청남도의 현재와 미래의 변화 패
턴 및 특징을 파악하여 각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항만개발 및 물류체계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바다목장 사업과 충남 수산의 미래

명정구 |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 나라 연안의 수산자원은 그동안 남획으로 인하여 자원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이며 따라서 감소한 연안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일정한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원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공어초시설사업과 수산종묘생산 및 방류사업으로 대별되는 자원 조성 사업은 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종묘 생산기술이 주로 양식용 어종에 국한되어있고 방류 장소의 선정이라든지 방류규모, 방류 대상종의 크기, 방류 후 생존율 등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방류효과 조사 역시 최근 들어 일부해역의 특정 어종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효과 조사가 없는 실정이다.

바다목장사업은 어업형인 경우 "자연생태계의 조성을 포함하여 자원의 방류로부터 어획에 이르기까지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업생산시스템"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의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자원조성을 통한 자원이용·관리방법과 비교하여 보면 자연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면서 어업생산 및 어업경영을 영속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장화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1) 환경수용력평가 및 환경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기술개발, 2) 기능성어초, 인조 및 자연해조장, 음향급이기, 해류차단장치, 환경관측브이의 개발 및 설치, 3) 지속 가능한 높은 생산력 유지를 위한 자원량 파악 및 방류, 관리 기술의 개발, 4) 경제성 분석 및 새로운 어장이용관리 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사업추진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해양목장화를 위한 기반연구'를 실시하고 98년부터 9개년 계획으로 경남 통영 해역에 시범적으로 바다 목장화 연구개발 사업 시작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전남다도해 바다목장, 2004년부터는 동서제주에 각 1개소씩을 추가 지정하여 총 사업기간인 12년간(1998년~2010년) 전국 5개소에 총 사업비 158,900백만원을 들여 시범바다목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해 태안바다목장은 서해안 4개 후보지 중 1순위로 선정됨에 따라 작년부터 '갯벌형 바다목장' 모델 개발을 위하여 2010년까지 총 485억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바다목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충남 수산 발전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환경 보존과 자원 증대를 통한 연안복원이라는 미래를 위한 꿈을 실현하게 된다.

주5일근무와 웰빙시대의 어촌관광 진흥전략

정준 | 농촌체험휴양협회 회장

충청남도 서해안의 어촌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웰빙(Well-being) 문화를 접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웰빙'이란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로서, 남녀노소나 계층간의 구분없이 누구나 공감하는 생활철학이다.

그러므로 도시의 웰빙족들을 충남 서해안의 어촌관광지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는 웰빙의 핵심인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복잡한 도시 생활 때문에 심신에 누적된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서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과 섬에서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적극 추천하는 것은 바로 '학춤 건강법'이다.

백의 민족의 심볼인 학은 예부터 무병장수와 입신양명과 선비의 깨끗한 정신세계를 의미하는 대단히 격조 높은 조류이다.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서해의 임진강 하구와 천수만을 거쳐 남해의 순천만에서 율동하는 학은 옛 선비들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던 새이다. 선비들은 학의 문화를 생활속에서 즐기기 위해 '학춤'을 창안해서 오랫동안 추었다. 옛 선비들이 즐겨추었던 학춤은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건강이란 측면에서도 대단히 우수한 심신 수련법이다.

지금 전국적인 웰빙 붐을 타고 곳곳에 명상원, 요가학원, 기공 수련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학춤 이야말로 명상법·단전호흡·유산소 운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통합적인 한국형 건강수련법인 것이다.

둘째는 자가용을 소유한 자가 운전자들을 어촌관

광의 주유고객으로 삼아야 한다.

1970년대 중반 마이카 붐이 일어난 이후 2005년 상반기 현재 전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이미 1천5백만 대를 넘었다. 특히 금년부터는 '주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이미 금요일 오후가 되면 전국의 주요관광지로 빠져나가는 자가용의 물결로 고속도로가 정체되기 일췌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홍보만 하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의 자가 운전자들을 위한 타켓 마케팅 전략의 수첩이 절실하다. 이미 2003년에는 '동해안으로 떠나는 자동차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금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경상남도과 전라남도가 후원하는 '남해안으로 떠나는 자동차 축제'가 지난 6월 현충일 연휴기간(6월4일~6월6일)중에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되었다.

이제는 서해안에서 이러한 자동차 축제가 개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3년동안의 자동차 축제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어촌을 찾아오는 자가운전자들은 주로 30~40대의 가장들이며 가족단위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또 어촌을 찾아온 자가운전자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온 단체 관광객들에 비해 농수산물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서 농수산물 직거래가 활발히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어촌을 찾아온 자가 운전자들은 어촌체험이나 문화현장이나 역사유적지 답사를 하려는 욕구가 높아서 민박, 빈집구입, 민간투자 등의 도시와 어촌간의 문화교류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웰빙시대의 충남 서해안의 어촌관광활성화는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